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4년도 표어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행동지침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매맞는 목자

(스가랴 13:7-9)

본문에는 스가랴 9장에 이어 또 다시 메시아 예언이 나오니 다. 이 내용은 연대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학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인 메시아를 때리신다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호와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4, 6).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7절).

하나님의 목자 가운데는 거짓 목자가 있고(속 11:8), 어리석은 목자(속 11:15-17)가 있습니다. 비평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본문 7절이 스가랴 11장 마지막에 붙여야 할 것이 잘못 편집된 것이라는 편집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7절의 말씀은 거짓 목자, 어리석은 목자를 때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점일획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자를 때리시고 있습니다. ‘내 짝 된 자’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찢은 자를 바라보는 자들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삼분의 일, 곧 구원 받을 백성 가운데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마 24:2)는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죽은 숫자가 유대인의 삼분의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후 한 세기가 지난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1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들의 숫자는 다시 증가되어 2차 세계 대전에서 히틀러에 의해 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유대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렘 30:7) 라고 예언합니다. 이 날은 마지막 심판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심판과 저주가 있지만 한편으론 긍휼과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삼분의 이는 멸망당하지만 나머지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7절).

작은 자(little ones)는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자, 곧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힘입게 됩니다. 겸손은 믿음을 창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한 교만한함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이 마땅하다는 자세를 가지면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겸손은 가장 중요한 덕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을 구원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9절).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찢은 자를 바라보는 자들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삼분의 일, 곧 구원받을 백성 가운데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9절).

이 말씀은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소신지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흠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은혜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줄은 죽음도 세상도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메시아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이유는 죄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메시아로서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1)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존재는 인간이므로 양이나 염소가 그 죄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그 죄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살아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 속죄 사건

하나님께서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이 예언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2. 풀어지는 양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마 26:31).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의 첫 번 성취였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은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되었습니다. 이 일은 종말의 날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라”(8절).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점령당한 것은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40년 후에 “둘 하나도 둘

2005년도 교역자 업무 발표하다

위원회 및 기관	담당	교회학교	담당	교구	담당
예배위원회	윤영국	유아부	박금실	1교구·2교구	이규정
찬양위원회	윤영국	유치부	이규정	3교구·4교구	김운호
교육위원회	김운호	유년부	이태훈	5교구·6교구	오정식
서울 성경대학	김운호	초등부	이성득	7교구·8교구	이성득
서울경로대학	이용식	어린이 오후 예배	이태훈	9교구·10교구	이용식
주부대학	한상은	어린이 수요 예배	이용식	11교구·12교구	한상은
한국교회장신연구원	이성득	중등부	윤영국	13교구·14교구	윤영국
장학위원회	김운호	고등부	오정식		
교구위원회	오정식	대학부	서명철		
전도위원회	이규정	청년부	오정식		
신교위원회	이규정	장년 I III IIII IV V 부	김운호		
구제위원회	지혜영	사랑부	이용식		
홍보위원회(멀티미디어 순례자, 출판)	이성득	에바디부	임규현		
관리위원회(차량, 식당)	이용식	새가족부	지혜영		
상담실	이태훈	요리문답부	한상은		
권사회	지혜영	신혼가정부	이규정		
슬로권사회	지혜영	디아스포라부	박광일		
스데반회	한상은	신앙강좌부 ①	김영한		
클로리아, 필그림	이태훈	신앙강좌부 ②	김재진		
		영어예배부	Kinsler · 손재영		

전도학교 11기 수료, 12기 모집 오늘 찬양예배 시 수료식, 21일(주) 12기 시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전도학교 11기생 38명의 수료식을 갖는다. 그동안 이들은 토요일 저녁7시 혹은 주일 오후2시에 12주 과정을 공부하며 또 70인 전도대 목요축호전도대와 수요일간 및 토요일간전도대, 중보기도팀과 문서전도팀에서 활발하게 전도실습을 펼쳐왔다.

서울교회 전도학교는 올해도 4기 연속 진행으로 수료생 139명을 배출함으로써 교회 부흥과 세계선교를 향한 역량 있는 전문 전도일꾼을 계속 배출해오고 있다. 한편, 다음주일에는 제12기 전도학교가 시작되며 입학에 원하는 성도들은 20일까지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강석우 과 속 김대웅 김병용 김복송 남순덕 남태순 남현주 노인숙 박정수 서정현 손태기 신기숙 안인호 엄금순 오천수 오치열 유중관 유기찬 유순섭 이경희 이관모 이광렬 이기범 이순영 이영옥 장두현 장호진 정애신 정인주 정정희 진선자 최미아 최성희 최홍렬 하인선 홍광숙 홍창배 (이상 38명)

Home Coming Day 초청 준비되다

11월 27일(토) 오후5시 본당에서 열려

창립 13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27일(토) 오후 5시 본당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서울교회를 소개하는 영상 홍보물을 시청하고 오르간과 실내악 협연, 바이올린 연주, 독창과 중창 그리고 대담과 간증의 순서를 갖게 된다. 그리고 8층 만나 홀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동안 서로간

의 안부도 묻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초청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서울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유아기와 어린 시절을 한 지붕 아래서 지냈던 옛 가족과 가족 중 짝꿍으로 계신 분과 가족 기리 헤어져 타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을 초청하고 있다. 초청장이 필요하신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신자초청 열린다락방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은 태신자초청 열린다락방으로 모인다. 이미 작성한 태신자와 다락방원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을 다락방에 초청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가하도록 하며 나아가 11월 21일 태신자 초청잔치에 초청하도록 한다.

이미 배포된 열린다락방 지침서를 참고하여 모든 교구와 다락방이 철저히 준비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2004 사명자 대회 연속기도표

“성령의 사람, 예수증인”

(11월 12일 현재)

일시	요일	0-1	1-2	2-3	3-4	4-5	4-5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14	주일	주일예배																							
15	월	노문환 손병석 김현정 이영철 김미향	노문환 손병석 김현정 이영철 김미향	전기섭 손병석 김현정	전기섭 손병석 김현정	손병석 김현정 유숙인 이남성	임분도	이인순 이승희 박우욱 장호욱	이부자 송옥예	함요의	고경순 인영덕 백영자 김우경	김종자 김용례 백영자	공진문 김희진 김우경	한준홍 남정원 한정원 신용진 함요의	김정운 주익명	여연진 유병욱 최금자	김종윤 정종학 조성업	박재숙	윤봉준 김영화 신선주	윤봉준 김영화 정옥희	임준규 정정자 원복순 왕경희 김광태 최홍희	손태기 김영주 오영숙 박인숙 박인숙 서경애	김규태 박희예 박영희 김영주 조철기		
16	화	이갑진 김규태 박희예 이영철 김미향	이갑진 이옥란 김정옥 이영철 김미향 유옥현	장병무 김정옥 유옥현 이옥란 김미성	장병무 박정선 하영수 권은주 우미란	권은주 이인숙	임인선 오기연 우정애 문윤숙 이순희	임인선 오기연 우정애 문윤숙 이순희	임인선 오기연 우정애 문윤숙 이순희	김현주 황경선	유신 고경순 김순자 김우경	송옥예	김순자 윤찬오 홍재식	윤찬오 홍재식	서형렬	서형렬 윤영남 박진희	권장환 윤영남	신선주	정용택 곽숙 이경희	어태오 임정희 이경희 김영준 김혜영 정진돈 정유정	어태오 정옥희	서경애	어태오		
17	수	최학인 김계순 이영철 김미향 김인숙 김은희	최학인 김계순 이영철 김미향 김인숙 김은희	최정시 조정식	최정시 조정식 김영식 하영수	조정식 유숙인 이남성	김진희 한민숙	정미연 최현인 이남숙 이명순	김사무원 이상오 박정순 송미자 장정화 송익숙 정정원	수요 1부	임광식 노영숙 김경희 방승희 1-3	박이선 정애신 신정순 심재을	김인순 이민화	신현이 전원순	주경자 전원순	왕경희 김선영 김혜숙	한명순 김선영	수요 2부	김규태 박희예	남경수 조경희 조소진 이계홍	정미연 하태현 차영도 서경애 차도훈	서경애 이종창			
18	목	김대호 이영철 김미향 서경애	김대호 하태현 이영철 김미향 서경애	박정선 정은순 노명자 서경애	박정선 서경애 양홍경 이인숙 하영숙	강승용 서경애 이남성	임옥균 박영자	안미경 김연화	양미숙 이부자 석춘희 송옥예	왕성남 임인자	최나수 홍희순 왕성남 고경순 중보 기도팀	최경희 정봉금 중보 기도팀	이영희 김종자 심호숙	김인순 최근자 이순배 정정희	이정림 장근희 신정순 인영덕	김종근 최혜순 신정순	이영옥 윤숙희 김계순 서경애 정정숙	이영옥 윤숙희 김계순 서경애 정정숙	박정인	박정인 정옥희	곽숙 박영식 박연영	이학주 이은옥 박정순 현영옥 서경애	김규태 박희예 이은옥 이학주 홍일성 손영호		
19	금	윤봉준 서경애 이영철 김미향 서경애	윤봉준 홍일성 이영철 김미향	박두영 양미숙 석춘희	박두영 김일순 이우진 하영숙	박광식 박연영 이남성 손영근	서경선 김정순	이윤희 김정애 원복순 한혜순	배은희 이영선 박순동 최금자 이부자 송옥예 송은옥	유윤상 고경순	한성옥 김재성	오영자 최래욱	공진문	신종건 이상호	신종건 이상호	신종건 이상호 임윤자 채덕희	이동선 강애자 박영숙	홍성주 여연진 최금자 유병욱	김종윤 이종률 유영석 조성업 이동권 정종학	서춘식 박재숙 정옥희	금요기도			최영순 정유선 김규태 박희예	
20	토	임상현 최형렬 김찬진 이영철 김미향	임상현 최규조 노순례 이영철 김미향	김광성 김희동 김상철	고정숙 박경희 김상철 3-8	유숙인 이남성 고정숙 박경희 3-8	민찬희 김정순	민찬희 김정순	이부자 송옥예	이부자 김순자	이영희 고경순	송옥예	이부자	이부자	권순단 이슬래 박영숙 고정숙 손영선	심재을 정용옥	10교구	10교구	10교구	10교구	10교구 서춘식	3교구 정옥희	3교구 서경애	3교구 김규태 박희예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민족의 등대되는 서울교회

제 26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월요일 이상규 박사의 "한국교회 강단을 말한다"는 강의를 마지막으로 종강되었다. "설교와 설교자" 주제로 열렸던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연320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주간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 10년간 개근한 일곱 분의 목사님에게 기념패가 주어졌다.

지난 1992년 봄에 시작된 서울교회의 목회자 세미나는 26학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명실상부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스승의 인도로 처음 목회자 세미나를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은 세상 이야기가 아닌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는 서울교회의 목회자 세미나가 자신의 목회에 큰 유익을 주어 10년간 빼놓지 않고 다녔다고 한다. 다른 목사님은 서울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다른 기관의 목회자 세미나와 비교해 볼 때 수준이 높고 강사들의 준비가 철저한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서 신학교 때 배운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며 매번 큰 기대를 가지고 서울교회를 찾았고, 서울교회의 목회자 세미나는 한 번도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편 이종윤 목사님은 시대의 흐름을 배제하지 않아서 그때마다 국가와 민족에 맞는 말씀을 강해하여 참석한 목회자들의 민족의



▶ 목회자세미나 10년 개근 회원

식을 고취시켰고 수준 높은 강사진을 초빙하여 좀처럼 접할 수 없는 기독교계의 석학들을 이곳 서울교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만나므로 목회의 큰 도전을 받았다고 했다.

서울교회가 논현동에 있을 때부터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목사님은 예배당이 협소하여 강남 YMCA에서 열릴 때 수많은 봉사자들이 일찍부터 나와 강당을 정리하고 목회자들의 점심을 손수 준비한 김밥으로 대접하며 수고하던 때를 기억하며 저들의 땀과 수고로 오늘의 서울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다른 목사님은 강단이 새로워져야 한국교회가 살아남는다는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이 뼈속 깊이 사무친다며 자신도 목회 현장에서 이를 위하여 땀 흘리고 있다고 했다.

오직 한국교회의 갱신을 부르짖으며 여기까지 달려온 서울교회의 목회자 세미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명을 다 할 것이요 (오주명(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70인전도대

전도는 할수록 쉽다 !!!

김은태 집사(70인 전도대 대장)



얼마 전 어느 거래처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사장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 전화기에서 복음성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일 년에서 너 차례 전화하여 문의하는 거래처인데 그는 처음으로 음악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알렸고 나는 그것을 이제야 알아 차렸습니다. 음악이 중개한 놀라운 상호 정보교환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벨이 울릴 때 혹은 대기시간 동안 기독교 방송의 설교나 찬양소리로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메운다면 이것은 곧 말없는 전도가 됩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하면 할수록 쉽고 느껴지게 됩니다.

주일 전도대 교육에서 어떤 조장님은 전도사례를 발표하며 외국서 살다 온 분으로 분명히 믿는 줄로 알고 서울교회로 인도하려고 벨을 눌렀는데 문을 여는가 싶더니 갑자기 얼마나 문을 세계 단야 버리는지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그 순간 더 이상 전도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실망과 속상함에 다른 집으로 발을 옮겨 몇 가정 더 전도하고 집으로 가는데 차에서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그 분이 전화를 건 것입니다. 약30분 정도 전화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야박스럽게 문을 닫아버려서 정

말 미안했다며 자신은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서울교회에 등록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사명자 대회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대회입니다. 먼저 전도할 대상자를 주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의 이웃은 소망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할수록 쉽고 재미있습니다.

사명자대회의 기도

사명을 주신 주여!



최명열 집사(2교구)

역사의 주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서울교회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하여 민족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하여 세계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렬한 기도와 성경적 설교와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교육과 구제의 세 기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기 위한 비전으로 살게 하시며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제가 되어 흠여져버린 우리에게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타다 남은 부지깥이에 불을 붙여 주셔서 함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 위에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서울교회에 하늘 문이 열려서,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주의 백성들이 모두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는 생명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민족 앞에서는 등대의 불빛이 되어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세계선교를 향하여 나침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서울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헐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 교회설립기념주일에 현당하기로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온 교회가 정성으로 이일에 달려가고 있사오니, 사명자들로 헌신하게 하시며 현당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르간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 (Chamber Music Concert with Organ) 11월 16일 (화) 12시



김선아(오르간)

-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 독일 Düsseldorf 국립음대 교회음악과 졸업(교회음악 A-Examen)
- Düsseldorf 국립음대 대학원 합창지휘과 졸업(디플롬)
- 현 연세대, 서울장신대, 장신대 출강

햇빛선교센터 부오르가니스트 및 명륜중앙교회 지휘자



연세 스콜라 칸토름(연세대 교회음악과 재학생)

- 윤선화(소프라노) 윤재인(알토)
- 유종훈(테너) 김영민(베이스)

구제위원회 나자로의 집 위문하다

지난 11일(목) 우리교회 구제위원회(위원장 정병무 장로)는 장애인 보호, 재활 시설인 나자로의 집을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극심한 경제의 침체로 국민들의 후원이 어려워진 지금 교회의 사랑의 손길은 더욱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으로 전달되었다.

대학부 OPEN HOUSE 11월 20일(토) 오후4시30분

200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대학부는 오는 11월 20일(토) 오후4시 30분부터 1층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갖는다. 오픈하우스는 1년 동안 대학부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대학부원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자리로 찬양과 예배, 워십댄스팀의 워십공연, 난타 공연, 성극 공연 및 친교와 식사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그동안 대학부에 잘 나오지 못했던 이들, 또 대학부를 경험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행사이며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16학기 서울성경대학 수료식 오늘 신앙예배 시

* 야고보서 (54명)

고완순 곽미숙 김미성 김미숙 김애실 김연화 김유경 김인실 김정순 김지희 김진희1, 김진희2 김해영 김희순 나영숙 노인숙 민정순 박미영 박분옥 박성미 박수옥 박순복 박이선 서경애 석상화 송미정 심명숙 안경옥 안명덕 안미경 안정배 양호경 우경애 이경구 이규효 이은희 이정희 이재봉 이해순 이화진 임승자 전인태 정동학 정연택 조정옥 주화인 천경숙 천정화 최경희 최미경 최봉희 최중희 함언호 현기욱

* 로마서 수료자 명단 (15명)

곽 숙 김진희 김혜자 나옥녀 오혜경 유숙인 장정화 전배호 전용순 정미연 주경자 주동재 최용걸 최재식 민마리아

* 사무일상 (16명)

김수정 김숙자 김은순 김재근 김혜숙 남태영 민마리아 박두영 백영희 유 신 이규희 전행자 정경숙 정병무 최정자 이명희

* 빌립보서 (34명)

김동진 김미성 김세재 김양숙 김영미 김영심 김영우 김영주 김재근 김진희 김혜숙 남태영 민마리아 박두영 박순복 백영희 이계홍 이난화 이미숙 이순복 이순희 이종창 이해순 임승자 강두현 전행자 정병무 조동완 주동재 최낙준 최미경 최봉희 최영수 함언호

* 교사양성반 (20명)

권순단 권장철 김덕수 김숙자1 김숙자2 김화평 김현관 박미영 오장원 오치열 원영애 원희숙 윤현미 이봉규 이성직 이정자 이찬호 정유선 최정순 한충현

* 교구일꾼양성반 (13명)

고금란 권은주 김경희 김규희 김순덕 김영숙 김 옥 김희순 박성금 신현이 양정실 정인주 최태경

* 주부대학 (6명)

안명덕 오순심 인용자 임명숙 전숙향 정정숙

* 경로대학 (4명)

김계순 나옥녀 송갑순 허인숙

황혜자 집사(5 교구)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라 지금처럼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누구든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곧바로 사회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수능 제도와 비슷한 '예비고사'라는 것이 있어 대학을 가려면 먼저 이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수능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때 제가 겪었던 마음의 갈등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고 보니 예비고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는 고3이면서 수능을 보지 않고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요즘 저는 아들 재우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며 신앙이 아름다운 재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정하셨는지 기대됩니다.

지금 수능을 앞둔 입시생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정성으로 간구하는 부모님들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누리므로 이번 수능에 자신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과 3일을 앞두고 있는 수능시험입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기억하며 그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 가운데 있는 여러 터널 가운데 '수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며 그 길을 달려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100% 발휘하는 수능 시험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8일(목) 복음선양동지회, 19일(금)에는 한기총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 위원회를 소집하고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 이사:김정훈, 김희정 집사(11교구)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 120-1102 T: 406-1477
- 개업: 이병현 채경희 집사(5교구) 이지바이 코리아(홍소평) 강남구 신사동 508-3 삼현빌딩 T. 3445-1860 최광성 집사, 이정연 권사(12교구) 일식집 '아케보노' 강남구 신사동 508-2호 T:511-8024
- 주간식당 봉사: 스테반회(11월14일) 권사회(11월21일)
- 금주의 식사: 이강진 장로·박우주 권사 가정 -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윤승희(대학부)

모두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테지요. 나도 1학기 수시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학부에 들어가서 이를 수 있는 비전을 찾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실망도 하곤 했었지요.

하지만 이런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지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란 어떤 말씀으로 나를 도와 주실까 하는 생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지하철 속에서 잠깐이라도 꼭 성경을 읽으며 큐티를 하려고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수능은 통과해야 할 관문이지만 자기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 하답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우리교회에 고3 기도결연자 제도가 있어서 난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 기도 결연자들이 모이던 날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담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든든해졌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기도의 용사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수능이 며칠 안 남았지만 조금만 마음보다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 치던 날 교복을 입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학교로 갔고, 시험장 앞에서 어머니하고 다시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항상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은 핸드백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코팅을 해서 내게 주셨던 성경말씀인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비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4 - 주일 저녁 9시5분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r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4 사명자대회 8대기도제목 성취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피택집사·권사들의 영성과 임직식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